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엄

1주차	일시	11 월 17 일 18 : 0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한준 2091083	O
		임수미 2291010	O
		김건우 1971448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1 p. ~ 105 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89 1457 1364"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조세홍(교수님), 김건우, 임수미, 이한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p> <p>이한준: 책의 서론에서 언급된 입시 비리 사건이 인상 깊었다. 부유층 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 했는지 분석한 부분이 흥미로웠다. 단순히 돈을 넘어 '능력'이라는 명예를 사고 싶어 했다는 점이 능력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p> <p>임수미: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희망적인 격려인 줄 알았는데, 저자는 이것이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모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준다는 문장이 뇌리에 박혔다.</p> <p>김건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재능이나 가정환경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 결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p>	

2주차	일시	11월 24일 18 : 0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한준 2091083	O
		임수미 2291010	O
		김건우 1971448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106 p. ~ 210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수미, 김건우, 조세홍(교수님), 이한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김건우: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누구나 노력하면 오를 수 있다"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수사학이 실제로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p> <p>이한준: 학력주의에 대한 비판 부분이 공감되었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를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편견이라는 지적이 날카롭다.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소외감이 포퓰리즘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p> <p>임수미: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과거의 부자와 빈자 구분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능력이 곧 도덕적 우월성으로 연결되는 사회 분위기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깊이 토론해 보았다.</p>	

3주차	일시	12월 1일 18 : 0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한준 2091083	O
		임수미 2291010	O
		김건우 1971448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211 p. ~ 315 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6 607 1457 1153"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이한준, 조세홍(교수님), 김건우, 임수미]</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p> <p>임수미: 성공을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오만'이 윤의 역할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내 덕분이 아님을 인정할 때, 타인에 대한 겸손과 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p> <p>김건우: 대학이 인재를 선별하는 '분류 기계'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대학 입시가 교육적 목표보다 사회적 지위 배분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과연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p> <p>이한준: 제비뽑기 입시 제안이 다소 파격적이지만 흥미로웠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추첨으로 뽑자는 아이디어는 능력주의의 폭정을 깨기 위한 극단적이지만 철학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완</p>	

4주차	일시	12월 8일 18 : 0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한준 2091083	O
		임수미 2291010	O
		김건우 1971448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315p. ~ 420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수미, 이한준, 김건우]</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이한준: '일의 존엄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마음에 든다. 금융처럼 돈을 불리는 일보다, 실제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노동들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시민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p> <p>임수미: 결국 해법은 '겸손'인 것 같다. 나의 성공이 우연에 빚지고 있음을 아는 것.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가졌던 엘리트 의식이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다. 능력주의 너머의 '공동선'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p> <p>김건우: 4주간의 독서를 마치며, 공정이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의 평등,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는 태도임을 깨달았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이한준 2091083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혼자 읽었으면 어려웠을 내용을 학우들과 토론하며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임수미 2291010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력주의가 주는 폐해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대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3	김건우 1971448	책 내용이 방대하고 철학적이었지만,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완독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공정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4	성명 (학번)	
	5	성명 (학번)	

2025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28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이한준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학번	2091083	저자명	마이클 샌델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이전부터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공정'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왜 착각일 수 있는지, 이면에 숨겨진 능력주의의 폐해를 알아보고자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주의가 사실은 공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분노와 굴욕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미국 사회의 입시 비리, 소득 불평등, 포퓰리즘의 등장 등을 예로 들며,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 덕분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구일 수 있는지 지적한다. 재능이나 가정환경 같은 운의 요소를 무시한 채 능력을 기준으로 보상을 분배하는 시스템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 샌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의 존엄성' 회복과 '기여적 정의'를 제시한다. 시장 가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모든 노동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 성공은 운에 빚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이라는 굴욕감을 준다"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학력주의가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대학생인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소위 스펙을 쌓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연대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덮으며 공정한 사회란 단순히 사다리를 오를 기회를 평등하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의 성취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공정의 시작일 것이다.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대학생에게 추천한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진정한 공정과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서평 침삭 방법] ※무조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고와 표현 과정'에 제출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상담 프로그램 신청 ▶ 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서평 제출 방법] ※자유 형식, 파일 첨부 가능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상상독서 홈페이지 ▶ 글쓰기(파란색 아이콘) ▶ 도서 검색 ▶ **1. 해당 양식으로 작성한 침삭 전 서평 / 2. '사고와 표현 과정'에서 피드백 받은 침삭 내용 / 3. 침삭 내용 반영한 최종 서평 총 3가지** 입력 후 발행